

출제 박미영  
한국NIE 협회장  
그림 최지민



요일별 주제 안내

월요일 (려주)  
독서 NIE  
아트 리터러시 NIE

화요일  
시사 토론 NIE

목요일  
인도주의 NIE

### 최척전



#### 1. 최척을 도와준 명나라 장군

식량을 구하려 간 사이에 아내가 왜곤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내도 없는 이곳에서 나 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럼 명나라로 가서 나랑 같이 살아 보세. 자네 한 사람 정도는 먹여 주고 재워 줄 수 있단네.

쫓쫓, 불쌍해라.

'최척전'은 1621년 문신 조위한이 지은 한문 소설입니다. 임진왜란·정유재란·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죠. 이 장면은 아내 '옥영'이 왜군에게 끌려가 절망한 최척을 명나라 장군 여유문이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 2. 옥영을 도와준 일본 상인

그대 통소 소리 맑게 울리니, 달도 내려와~.

앗, 이것은 아내가 지은 시인데! 혹시 내 아내일까?

부부인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내를 우리에게 파시오. 내가 돈을 주겠소.

옥영은 내 친구입니다. 돈을 받고 친구를 팔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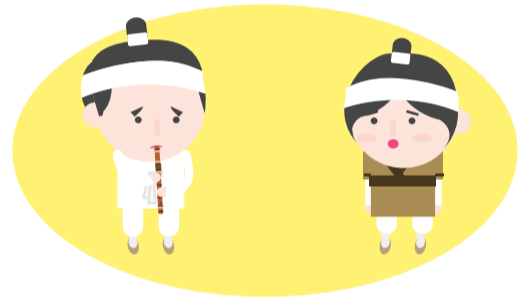
옥영! 내가 돈을 줄 테니 이걸 받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옥영과 일본인 '돈우'의 돈독한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옥영을 남자라고 생각했던 돈우는 그녀를 친형제처럼 아꼈습니다. 옥영이 남편을 만나자 돈우는 옥영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은화 열 냇을 주어 행복을 빌어 줍니다.

『최척전』 - 조위한

1 '최척전'은 국경을 넘는 사랑과 우정을 다룬 한국 고전소설입니다. 다음 설명 중 소설 내용을 바르게 설명한 것에 '○' 표시하세요.

설명	○표시
최척은 가난한 조선 사람이고 돈도 없다면? 대체 우리 명나라에는 왜 온 거야? 일이나 시키면서 실컷 부려 먹어야겠어.	<input type="checkbox"/>
최척은 조선 사람이고 돈도 없대. 돈을 벌 수 있게 일거리를 줘야겠어. 우리 명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자.	<input type="checkbox"/>
옥영은 일본에 잡혀온 포로야. 남편을 만났다고? 알게 뭐야. 비싸게 팔아넘겨야겠어. 옥영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무슨 상관이야? 난 돈만 벌면 돼.	<input type="checkbox"/>
옥영이 낯선 일본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남편과 함께 살면 행복하겠지? 난 친구의 행복을 빌어 주겠어.	<input type="checkbox"/>



2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음 중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로 바람직한 것에 '○' 표시하세요.

설명	○표시
○○은 가난한 나라 출신이고 돈도 없다면? 대체 우리 한국에는 왜 온 거야? 일이나 시키면서 실컷 부려 먹어야겠어.	<input type="checkbox"/>
○○은 가난한 나라 출신이고 돈도 없대. 돈을 벌 수 있게 일거리를 줘야겠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 주자.	<input type="checkbox"/>
△△은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노동자야. 가족을 만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외국인 노동자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무슨 상관이야? 난 돈만 벌면 돼.	<input type="checkbox"/>
△△이가 낯선 한국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고향에서 가족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고향에 다녀오도록 돕고 싶어.	<input type="checkbox"/>



3 '최척전'은 '최척과 옥영이 낯선 나라에서 외국 친구들 도움을 받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동화책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은 이주 노동자에 관한 동화책입니다. 내가 동화 작가라고 상상하며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은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국인 친구들은

그래서 ☆☆☆은 행복했습니다. 동화 끝!

'인도주의(Humanitarianism)'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본격적인 근대 인도주의 활동은 1863년 세계 적십자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어린이조선일보와 대한적십자사는 아동·청소년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지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